

간호대학생의 성격유형과 주장훈련이 주장행동, 갈등관리 양식에 미치는 영향*

박 정 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는 업무수행상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간호사는 특별한 요구를 가진 환자와 위기에 처한 가족, 팀을 이루는 동료 간호사와 여러 보건의료 인력들, 학교나 산업장에서 다양한 인력들과의 관계,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매우 다양한 인간관계를 적절히 유지해야 한다. 특히 병원사회는 조직적이며 위계적인 사회이므로 인간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하겠다. 인간관계에서 자기의 생각을 타인과 정확하게 의사 소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의사소통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타인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상처를 받으며 스트레스를 받고 갈등이 생기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된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간호사는 실제로 현장에서 의사소통으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Park, 1994; Lee, 1997; Cho, Hong과 Kim, 2001; Kwon, 2001).

간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이론교육과 함께 실습을 통한 현장경험이 중요한 요소로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실습교육은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배우 부담스럽고 힘겨운 과정이고 따라서 실습교육을 위한 학생

준비에는 이론교육과 함께 의사소통이나 자신의 사고, 느낌, 행동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조절하고 적용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의사소통 촉진 중재의 하나인 주장훈련이 학생들의 주장행동, 문제해결, 대인관계, 스트레스 감소, 불안 감소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Park, 1987; Yang, 2001; Jang 과 Kim, 2002).

Jung 의 분석심리학에 기초를 둔 MBTI 성격유형에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저마다 독특한 선호경향을 갖고 생활양식을 선택한다고 설명한다. 각자는 사물을 볼 때, 의사결정을 할 때, 삶의 양식을 선택할 때 나름대로의 타고난 선호경향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을 타인과 의사소통 할 때에도 이 성격유형은 작용하게 된다. 즉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사람과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러한 심리적 경향성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간호사의 성향에 따라서 인간관계나 의사소통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간호학 연구에서 이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성격유형 검사를 통하여 타고난 성향을 먼저 조사해 보고 이들 성향이 주장행동이나 갈등관리 양식에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장훈련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장훈련을 통하여 주장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장훈련이 주장행동과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관리하는 양식과의 관

* 본 연구는 2001년도 마산대학 교내연구비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마산대학 간호과

제도 함께 알아보려고 한다. 이 연구결과는 전체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 전 준비교육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주장훈련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면서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 촉진을 위한 좋은 접근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장훈련을 통하여 학생들은 실습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고 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며 환자와의 관계가 원만해지고 졸업 후 직장에서의 간호사로서 성취도와 만족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MBTI 성격유형이 간호학생의 주장행동과 갈등관리 양식에 관련이 있는가 알아보고 주장훈련이 이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실시되었다.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성격유형에 따른 주장행동과 갈등관리 양식의 차이를 알아본다.
- 2) 주장훈련이 주장행동과 갈등관리 양식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아본다.

3. 연구의 가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1) 성격유형에 따라 자기주장 행동과 갈등관리 양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 주장훈련을 받은 학생은 주장훈련을 받지 않은 학생보다 주장행동을 더 잘 할 것이며 협력-타협형 갈등관리를 더 잘 할 것이다.

4. 용어의 정의

① 성격유형

성격유형은 사람의 성격을 유사한 특성으로 분류하여 유형화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Jung(1920)의 분석심리학에 근거를 두고 Myers와 Briggs가 개발한 심리적 선호경향 측정도구를 Kim 과 Sim(1991)이 번역한 MBTI GS형 검사로 측정된 16가지 성격유형을 말한다.

② 주장행동

주장행동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대방의 인격과 권리

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생각, 의견, 또는 느낌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Park(1994)이 사용한 주장행동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된 결과를 말한다.

③ 갈등관리 양식

갈등은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존재하여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갈등관리 양식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처리해 나가는 방법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Park(1994)이 사용한 갈등관리 양식 검사로 측정된 결과를 말한다.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1. 간호상황에서의 스트레스

간호상황은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병원 상황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나 간호학생들은 이러한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솔직하게 나타내지 못하고 참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맞추어서 행동하고 나서는 혼자 고민하거나 스스로에게 화를 내게 된다. 혹은 용기를 내어 하고 싶은 말을 했다가 상대방이 화를 내게 되어 기분만 상하는 경우도 많다. 간호사는 대상자나 환자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지만 시행하지 않는 행동이나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시행하도록 돕기 위해서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간호사와 동료간호사, 상위직 간호사의 관계에서도 공격적이거나 소극적이 아닌 주장행동을 통한 적절한 자기표현은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한다.

간호학생은 학과의 특성상 학생시절에 필수적으로 임상실습을 하게되는데 이 실습과정은 학교가 아닌 실제 현장이므로 많은 인간관계와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부담감을 많이 갖게 된다. 간호학생은 실습기간 중 환자, 보호자, 간호사, 다른 보건의료인 등과의 인간관계를 갖게 되는데 Park(1997)은 간호학생이 대인관계 중 스트레스를 느낄 때를 조사한 결과 교수에게서 평가를 받을 때, 임상지도교수의 설명을 못 알아들을 때, 수간호사나 간호사에게 관찰될 때, 교수와의 집단회의, 간호사와의 관계, 의사와의 관계 등의 경우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Park(2000)은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관련요인 분석에서 학생들은 임상실습에서 두 번째 어려움으로 '정서적인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했으며 정서적 어려움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스트레스와 긴장'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임상실습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이 된다. Cho(1998)는 간호학생의 자기표현 수준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관계 연구에서 간호학생들은 바른 자세와 적합한 역할 및 태도로 의사표현을 하며 상대방을 잘 배려하지만, 상대적으로 사과를 많이 하고 자신이 말하고 싶은 바를 단호하게 말하지 못하며 대화의 마지막에 가서야 말하거나 또는 참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자기표현은 실습만족도가 높고, 인간관계, 건강상태 및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높으며, 특히 인간관계는 자기표현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Kwon(2001)은 간호학생들의 정서에 대한 연구에서 학생들의 사회심리적 건강이 낮으며, 중상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2. 성격유형과 의사소통, 인간관계 유형

Jung(1920)은 인간에게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심리적 경향이 있으며 이 경향성은 성장하면서 부모의 양육태도나 가족과의 관계, 친구, 배우자, 직업 등의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약화되기도 하고 강화되기도 하면서 발전시킨다고 보았다. 이 심리학적 유형은 일반적인 태도상에서 보는 유형으로 외향형과 내향형이 있으며 정신의 각 특수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그 중 적응과정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분화된 기능으로 구분하는 기능 유형으로 사고, 감정, 감각, 직관으로 나눈다.

일반적인 태도인 외향형은 중요한 결정이나 행동의 대부분을 주체의 의견에 의하지 않고 객관적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외향적 태도를 습성화하여 그의 생활의 일정한 특징을 이루는 것이다. 이들의 도덕적 행동기준은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관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들은 다소의 갈등이 있어도 최후에는 객관적인 조건에 알맞도록 결정이 내려진다. 그러므로 쉽게 주변상황에 적응한다. 그러나 내향형인 사람은 판단과 행동을 결정할 때 주관적인 판단에 따르기 때문에 때로 고집스러워 보인다.

Jung의 정신의 4가지 기능은 합리적 기능인 사고와 감정, 비합리적 기능인 감각과 직관이며 각 기능을 구성하는 두 기능은 서로 극을 이루어 대립하고 있다. 사고란 주어진 관념내용을 그 고유의 법칙에 따라 서로 연관시키는 정신기능이다. 사고는 판단작용이고 판단은 평가 기준을 전제로 한다. 외향적 판단은 평가기준이 객관적

에서 빌려 온 것들이고 내향적 판단은 주관적 원천에서 온 것이다. 감정은 자아와 주어진 내용사이에 일어나는 과정으로서 그 내용에 받아들여던가 돌려보내던가 하는 일정한 가치부여 과정이며 전적으로 주관적이므로 외부의 자극과 전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도 있을 수 있는 과정이다. 외향적 감정은 객체적 기준이 감정판단의 근거가 되고 내향적 감정은 주체의 기준이 판단의 근거가 된다. 감각이란 물리적 자극이 인식을 매개하는 심리기능이다. 구체적 감각은 순수하게 나타나지 않고 늘 상상, 감정, 사고와 섞여 나타나고 추상적 감각은 그 자체의 원리에 따라서 지각하는 것이다. 직관은 무의식적인 방법으로 인식을 유도하는 심리기능으로 구체적 직관은 사물의 사실성의 인식을, 추상적 직관은 관념상의 관련의 인식을 증개한다.

성격검사를 통한 심리유형의 이해는 인간관계, 의사소통 유형, 교육성취도, 직업적성과 진로지도, 학습스타일, 자녀양육태도, 자신의 성격 이해 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의사소통과 관련된 특성은 내향형/외향형인데 이들 성향과 의사소통 양식을 보면 외향형인 사람의 의사소통 유형은 다수와 의사소통하며 외부의 사건이나 질문에 신속히 대응하고 자신의 생각, 의견 즉시 표현, 일대일, 집단소통 모두 선호하며, 대화의 주도권을 갖고 말로 의사전달 선호한다. 반면에 내향형은 소수와 의사소통하며 대응하기 전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일대일 대화를 선호하며 요청할 때만 발언하고 글로서 의사소통하기를 선호하며 결론을 제시하기 전 반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견을 보류하고, 타인의 말을 청취하며 개인적인 정보주기를 주저한다.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Lim(2001)은 간호학과 입학생들의 성격유형을 5년 간 조사한 결과 성격유형과 입학성적,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에서 내향형이 외향형보다 성적이 우수했고 판단형이 인식형보다 전학년어 비해 학업성취도가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Kwon(2002)등은 MBTI를 활용한 성장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연구에서 성장 프로그램의 적용이 학생들의 대인관계, 진로정체감 모두를 높일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3. 주장행동과 주장훈련

주장행동이란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

신의 권리, 욕구, 생각, 느낌 등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상대방에게 직접 나타내는 행동을 의미한다. 비주장 행동에는 소극적 행동과 공격적 행동이 있으며 소극적 행동은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나타내지 못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거절하지 못하여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하는 행동을 말하고 공격적 행동은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행동을 말한다.

주장행동의 요소는 언어적 기술과 비언어적 요소로 구성된다. 언어적 기술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야기 할 것, "나" 진술, 상대방의 감정 예견, 주도적인 대화, 정보의 제공과 습득, 자기노출, 건설적인 비평의 제공, 비평의 수용, 개인적 비평의 제공, 설명 없는 진술, 대화의 초반에 말함, 칭찬을 주고받음, 부정적인 느낌의 표현, 느낌을 말함, 정확한 단어 사용, 예절을 지킴 등이다. 비언어적 요소로는 적절한 거리 유지, 똑바로 선 자세, 적절한 손의 움직임, 시선의 접촉, 얼굴표정, 자연스러운 음성, 내용의 이해 등이다.

주장훈련은 주장행동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으로 목적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느낌 등을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을 익히게 함으로서 인간관계 개선, 자기능력의 신장, 정신건강 증진, 간호업무 향상 등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장훈련 프로그램은 주장행동을 방해하는 비합리적 사고를 감소시키고 주장행동의 기술들을 습득하게 하여 주장행동을 높이는 것으로 일상생활 장면과 병원상황을 포함하였는데 Park(1994)이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4. 갈등관리 양식

Sullivan 과 Decker(1995)는 갈등을 '개인 또는 집단 사이의 생각, 태도, 느낌, 행위 내에 차이가 있을 때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갈등은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존재하여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Lathaus는 갈등을 개인적 갈등, 대인적 갈등, 집단간 갈등, 조직간 갈등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적 갈등은 개인의 성격, 역할불만족, 자신이 생각한 자신의 지위와 조직에서 부여한 지위의 불일치,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 불일치 등이며 이들의 차이는 역할 갈등으로 나타난다. 대인적 갈등은 인간관계에서 생각이나 느낌, 관념의 접근에서 차이가 있음이며 개인적인 차이에 기인한다.

집단 간 갈등은 집단 내에서 하위집단간에 발생하는 것이고 조직간 갈등은 경쟁적인 조직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이다. 이 중 간호사가 경험하는 갈등은 대인적 갈등이 가장 많으며 대인간 갈등의 원인은 가치관의 차이, 의사소통의 결핍, 업무의 압박, 조직내 계층간의 복잡성, 제한된 자원, 불명확하거나 중복된 업무, 지나친 기대감, 불명확하고 비합리적인 정책, 원칙, 규범 등이다.

사람들이 갈등이 생겼을 때 반응하는 형태는 소극적이 되거나 공격적이 된다. Thomas와 Kilmann(1974)의 갈등양식 검사를 기초로 개발한 Park(1994)의 갈등양식 검사에서 사람들은 상대방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을 은 다음의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협력-타협형은 서로의 관심사를 모두 만족시키려 한다. 자신과 상대방의 관심을 정확하게 알고 하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통합적인 해결방법을 도출할 수 있다. 시간이 걸리지만 본질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②회피-순응형은 타인의 관심사나 이익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자신의 관심사를 양보하거나 포기하는 수용형, 직면한 문제를 피하고자 갈등현장을 떠남으로 자신과 타인의 관심사 모두 무시하는 회피형은 복잡하거나 악화된 문제에는 부적합하며 협동은 가능하게 하지만 중요한 문제점을 소홀히 다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이다. ③강행-순응형은 상대방을 압도하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방법으로서 신속하지만 상대방의 분노와 원망을 초래한다. ④절득-순응형은 상호교환, 상호양보를 통해 양자가 부분적으로 만족을 피하는 형으로, 보편적인 방법이고 민주적인 방법이지만 잦은 타협은 우유부단한 결과를 초래하고, 창의적 문제해결 방안의 창출을 방해한다. 본 연구에서는 ①과 ④를 하나로 묶어 협력-타협형 ②강행-순응형 ③회피-순응형으로 구분하였다.

Cho(2001)는 간호사의 인간관계 갈등과 의사소통 연구에서 간호사가 갈등을 갖는 사람들은 상위간호사, 의사, 환자, 보호자, 관리직 순이고 갈등정도가 중등도 이상인 경우는 상위간호사(지역, 직급과 관련), 의사(연령, 경력과 관련됨) 순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Park(1994)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주장훈련과 가치명료화 훈련을 실시한 결과 간호사의 의사소통 갈등정도와 역할갈등 정도가 유의하게 낮아졌으며 갈등관리 양식은 합리적인 갈등관리 양식인 협력-타협 방식이 유의하게 높고 비합리적인 방식인 회피-순응 양식과 강행-순응 양식은 유의하게 낮아졌다고 보고하고 있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설계, 연구대상, 훈련 프로그램, 측정도구 및 자료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주장훈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군을 선정하여 사전검사와 집단훈련,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는데 훈련집단의 크기를 10명 내외로 하기 위해 반별로 두 집단을 운영하였다. 역시 같은 반 학생들로 대조군을 선정하여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만을 실시한 유사 실험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선정

연구대상 중 실험군은 연구자가 근무하는 대학의 간호학과 2학년 학생 중에서 훈련집단 모집공고를 보고 참가를 희망한 20명으로 집단 1은 11명, 집단 2는 9명이었다. 대조군은 같은 간호과 2학년 학생으로 역시 희망자 중 20명이었다. 연구기간은 2001년 10월 2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주 2회 총 6회, 각 120분씩 실시하였으며 집단 1은 월, 수요일, 집단 2는 화, 목요일에 수업이 끝난 후 연구자의 연구실에서 실시하였다. 사전검사와 성격검사는 훈련 전에 실시하고 사후검사는 훈련 1주일 후에 실시하였다.

3. 훈련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주장 훈련 프로그램은 Park (1987)이 개발한 주장훈련 도구를 사용하였고 여기에 연구자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과 미술치료에서 일부를 발췌한 몇 가지를 첨가하였다. 연구자가 첨가한 내용들은 Covey(1994)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공감적 경청'을 도입하여 잘 듣는 연습을 하도록 했고 '긍정적 사고체계'와 '성공하는 리더십 원칙'을 도입하여 주장행동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 사고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인생에서 남기고 싶은 유산'과 미술치료에서 사용하는 '인생폭선 그리기'를 통하여 자신을 집단원들에게 드러내도록 유도하였다 이 내용들은 주장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집단역동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3회부터는 훈련이 끝난 후 '주장행동 평가표'

를 과제를 내주어 다음 훈련 때까지 3회 이상 자신과 타인의 의사소통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4. 측정도구

1) MBTI 성격검사

MBTI는 (Myers-Briggs Type Indicator) Myers와 Briggs라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유형체시도로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Form G형으로 Kim과 Sim(1991)이 번역한 것이다. 훈련시작 전 대상학생 모두에게 실시되었다.

2)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주장행동을 평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는 Park (1987)이 사용한 도구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역할갈등검사-일상생활(역할갈등 1은 타인에 대한 갈등, 역할갈등 2는 자기자신에 대한 갈등으로 구분함), 의사소통 갈등검사-일상생활, 갈등관리 양식검사는 Park(1994)이 개발한 도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사후 검사에는 사전 검사 도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은 SPSS PC program 10.0을 사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를 구하였다. 성격유형과 주장행동, 갈등관리 양식의 상관관계를 구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사후 변화를 평균, 표준편차, t값과 상관관계를 구하였다.

Ⅳ. 연구 결과

간호학생들의 성격유형을 파악하고 학생들에게 스트레스 원이 되고 있는 의사소통 중재로서 주장훈련을 실시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두 집단간 동질성 검증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이 실험 전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두 집단의 평균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표 1>와 같이 각 항목에서 집단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동질성이 검증되었다.

2) 성격유형과 변수들의 관계

〈표 1〉 프로그램 실시 전 두 집단간 동질성 검증

	실험집단 평균(표준편차)	대조집단 평균(표준편차)	t 값	유의도
주 장 행 동	89.10(15.28)	89.00(9.48)	.025	.980
역할 갈등 1	61.30(9.74)	59.00(5.14)	.934	.356
역할 갈등 2	77.75(13.38)	73.15(7.84)	1.326	.193
의사소통 갈등	136.15(16.68)	132.45(11.28)	.822	.416
갈등관리양식(전체)	94.35(7.25)	92.90(5.59)	.708	.483
갈등 관리(협력)	13.30(2.77)	13.45(2.39)	-.183	.856
갈등 관리(강행)	41.95(4.96)	40.35(4.82)	1.035	.307
갈등 관리(회피)	39.10(5.72)	39.10(4.23)	.000	1.000

〈표 2〉 성격유형과 종속변수들의 상관관계

	EI	SN	TF	JP
주 장 행 동	.467**	.070	.049	-.164
역할 갈등 1	-.006	.132	.169	.230
역할 갈등 2	.018	-.020	.243	.173
의사소통 갈등	.146	.188	.247	.024
갈등관리양식(전체)	.027	.112	.144	.053
갈등 관리(협력)	-.093	.001	-.213	-.209
갈등 관리(강행)	-.237	-.132	.049	.145
갈등 관리(회피)	.316*	.274	.248	.034

* 유의도 0.05 수준 ** 유의도 0.01 수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분하기 전에 먼저 MBTI 성격유형을 검사하였다. 전체 대상자 40명 중에서 외향형이 20명이고 내향형이 20명이었다. 성격유형과 주장행동의 관계는 〈표 2〉와 같다. 성격유형의 각 지표 중 외향성/내향성 지표가 주장행동과 회피-순응 갈등관리 양식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즉 내향적인 사람들이 주장행동을 많이 하며 갈등이 생겼을 때는 내향성인 경우 회피-순응 양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실험집단의 사전, 사후 검사 결과
실험집단의 주장훈련 전, 후의 검사결과의 평균은 〈표

3〉와 같다. 표에서 보면 주장훈련은 실험집단의 주장행동(p<0.01), 의사소통 갈등(p,0.01), 회피-순응 갈등관리 양식(p<0.05)과 상관관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장훈련을 받은 학생들은 주장행동이 증가하였고 의사소통 갈등은 감소하였으며 갈등관리 양식 중 회피-순응 양식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대조집단의 사전, 사후 검사 결과
대조군의 사전, 사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4〉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조군은 사전, 사후 검사 결과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실험군의 훈련 전, 후 평균 비교

	사전검사 평균(표준편차)	사후검사 평균(표준편차)	t 값	유의도
주 장 행 동	89.10(15.28)	80.05(9.41)	3.932	.001**
역할 갈등 1	61.30(9.74)	58.35(9.20)	1.553	.137
역할 갈등 2	77.75(13.38)	77.00(6.99)	.337	.740
의사소통 갈등	136.15(16.68)	128.10(15.38)	3.393	.003**
갈등관리양식(전체)	94.35(7.25)	90.95(4.58)	1.669	.111
갈등 관리(협력)	13.30(2.77)	13.50(2.72)	-.408	.688
갈등 관리(강행)	41.95(4.96)	42.35(3.63)	-.372	.714
갈등 관리(회피)	39.10(5.72)	35.10(4.67)	2.681	.015*

* 유의도 0.05 수준 ** 유의도 0.01 수준

〈표 4〉 대조군의 사전, 사후 평균 비교

	사전검사		t 값	유의도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주 장 행 동	89.00(9.48)	87.50(8.04)	1.405	.176
역할 갈등 1	59.00(5.14)	59.60(5.31)	- .488	.631
역할 갈등 2	73.15(7.84)	76.75(9.13)	-2.017	.058
의사소통 갈등	132.45(11.28)	135.85(16.07)	-1.275	.218
갈등관리양식(전체)	92.90(5.59)	94.35(6.23)	-1.108	.282
갈등 관리(협력)	13.45(2.39)	13.55(3.05)	- .216	.832
갈등 관리(강행)	40.35(4.82)	42.00(3.70)	-2.065	.053
갈등 관리(회피)	39.10(4.23)	38.70(4.97)	.505	.620

〈표 5〉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후검사 결과 비교

	실험집단(n=20)		t 값	유의도
	평균(표준편차)	대조집단(n=20) 평균(표준편차)		
주 장 행 동	80.05(9.41)	87.50(8.04)	-2.691	.011*
역할 갈등 1	58.35(9.20)	59.60(5.31)	- .527	.602
역할 갈등 2	77.00(6.99)	76.75(9.13)	.097	.923
의사소통 갈등	128.10(15.38)	135.85(16.07)	-1.558	.127
갈등관리양식(전체)	90.95(4.58)	94.35(6.23)	-1.967	.057
갈등 관리(협력)	13.50(2.72)	13.55(3.05)	- .055	.957
갈등 관리(강행)	42.35(3.63)	42.00(3.70)	.302	.764
갈등 관리(회피)	35.10(4.67)	38.70(4.97)	-2.360	.023*

* 유의도 0.05 수준 ** 유의도 0.01 수준

5)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의 사후 평균 비교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의 사후검사 결과는 〈표 5〉과 같다.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의 사후 검사 결과는 주장행동(p<0.05)과 회피-순응형 갈등관리 양식(P<0.01)에서 유의 있는 차이를 보였다. 의사소통 갈등 정도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점수의 차이는 있었지만 유의하지는 않았다.

V. 논 의

간호사나 간호학생들은 업무 현장에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정확하게 의사 소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생기면 갈등이 발생하고 갈등은 스트레스원이 되어 정신건강을 나쁘게 하고 직장에서의 만족감을 줄이는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학생들의 성격유형이 주장행동이나 갈등관리 양식에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고 주장행동이 이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1) 성격유형의 영향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분하기 전에 먼저 MBTI 성

격유형을 검사하였다. 성격유형 검사결과는 총 40명 중 ISTJ 9명, ESTJ 6명, ESFP 6명, ISFP 5명, ISFJ 4명, ESFJ 3명, ENFJ 2명, ENFP, ENTP, ENTJ, INTJ가 각각 1명이었다. 이러한 분포는 우리나라 여자 대학생 성격유형 분포(Sim, 1994)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간호학과의 특성과 관련된 감정지표가 21명으로 유난히 많았다. 외향형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즉시 표현하고 힘이 있는 목소리, 빠른 말속도, 상대방과 눈을 맞춤, 많은 제스처의 사용 등을 사용하지만 상황에 적응을 잘 하여 자신의 의견을 잘 바꿀 수 있다. 내향형은 자신의 의견을 보유하고 타인의 말을 청취하며 작은 목소리로 눈을 잘 맞추지 않고 제스처도 별로 사용하지 않지만 자신의 행동기준이 내면에 있으므로 환경에 쉽게 영향받지 않고 적응하지 않는다. 연구결과에서 MBTI 성격유형 검사 결과는 주장행동과 갈등관리 양식에서 수용적인 태도와 상관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MBTI 연속점수와 타 척도간의 관계(Sim, 1994)에서 외향형인 사람은 자신감, 유연성, 지배성, 협력성, 순응에 의한 성취 등과 유의한 상관이 있다고 한 것과 관련되는 듯하다. 이 결과는 외향형인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경향이 있지만 환경이나 상황에 잘 적응시키기 때문에 상대방의 요구에 잘 따라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내향형이 주장행동을 더 많이 하는데 이것은 자기 원칙에 충실하므로 잘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것이 표현되지 못할 때에는 외향형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라고 해석된다. 한편 내향형은 갈등이 생겼을 때 협력하고 타협하거나 강요하기보다는 회피-순응적 갈등관리 양식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를 볼 때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성격유형을 파악하고 이에 맞도록 의사소통 방법을 교육하여 주장행동을 함으로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건강을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주장행동의 변화

본 연구결과 합리적 사고에 기초를 둔 주장훈련은 사고과정을 변화시켜 주장적 행동을 하도록 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참는 것을 요구하는 문화적 이유와 병원이라는 특수상황, 병원에서의 간호사의 위치 등 간호사들은 소극적 행동을 많이 하게 되므로 선행연구들에서 주장훈련은 간호사나 간호학생의 주장행동을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중재로 보고되고 있다. Park(1987)은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주장훈련이 주장행동과 불안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결과 주장훈련이 주장행동은 증가시켰으나 불안은 감소시키지 못했다고 보고하고 있고 Ha(1999)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장훈련이 주장행동을 증가시켰고 간호사의 일반적 스트레스는 감소시키지 못했으나 업무상 스트레스는 감소시켰다고 보고하고 있다. Yang(2001)은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장훈련이 주장행동을 증가시켰고 주장행동이 증가함에 따라 임상실습시 간호학생이 느끼는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Jang 등(2002)은 주장훈련이 간호학생의 주장행동, 문제해결 및 대인관계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도 이들 결과와 일치하는데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간호학생에게 실습교육에 임하기 전에 의사소통과 관련된 교육과 주장행동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장훈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3) 갈등관리 양식의 변화

본 연구결과 주장적 행동을 하도록 하는 주장훈련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협력-타협형 갈등관리 양식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회피-수용형 갈등관리 반응을 감소시켜 갈등관리 양식에 유의미한 변

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주장훈련이 내향형의 주장행동을 유의하게 증가시킨 것과 관련되어 내향형의 갈등관리 양식인 회피-순응형이 감소하였고 다른 두가지 유형에는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결과는 주장훈련이 간호학생들에게 의사소통 갈등을 감소시키고 협력-타협형 양식은 증가시키고 강행-순응형이나 회피-순응형 갈등관리 양식은 감소시켰다는 Park(1994)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 이유는 선행연구가 주장훈련 외에도 가치명료화 훈련을 함께 시켰고 본 연구에서는 주장훈련만 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결과를 볼 때 간호사의 업무수행 상황이나 간호학생의 실습상황이 많은 갈등을 유발하고 있고 적절한 갈등관리가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되므로 간호학생에게 갈등이 발생했을 때 협력적이고 타협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간호학과의 정규과정에서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격유형과 주장훈련이 주장행동, 갈등관리 양식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일개 대학 간호학과 2학년으로 사전에 MBTI 성격검사를 실시한 후 실험군은 두 집단으로 나누어 사전검사, 주장훈련을 실시하고 일주일 후 사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조군은 사전, 사후 검사만 실시하였다. 훈련기간은 2001년 10월 2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주 2회 총 6회, 각 120분씩 실시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각각 20명이었고 연구결과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격유형의 각 지표 중 외향성/내향성 지표가 주장행동과 회피-순응형 갈등관리양식과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주장훈련은 실험집단의 주장행동, 의사소통 갈등 정도, 회피-순응형 갈등관리 양식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의 사후검사 결과는 주장행동과 회피-순응형 갈등관리 양식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1) 주장훈련의 성과 중에서 성격유형의 차이로 인한

효과를 변별하지 못하였으므로 이후 주장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는 성격유형과 주장훈련의 효과를 구별해 내는 연구가 필요하다.

2) 성격유형의 분류에 따라서 주장훈련이 주장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Kwon, Y. M. (2001). A Study on the Relations of the Emotional Experience, Expression and Psychosocial Well-being of Nursing Students. *The J of Korean Acad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7(2), 183-195.
- Kim, K. S., Kim, W. S. (2001). The Seven Habits of Success Persons. Kimyoungsa, Seoul.
- Kim, K. B., Kim, H. S., Lee, K. H. (2001). Clinical Nurses' Professional Conflicts. *J of Korean Acad of Nurs*, 31(3), 492-505.
- Kim, M. S., Park, S. Y. (1995). The Practice of Assertiveness Training. Jungdam, Seoul.
- Kim, J. T., Sim, H. S. (1990). The Characteristics of 16 Myers-Briggs Type Indicator, Korea Psychological Testing Institute, Seoul.
- Kim, J. T., Sim, H. S., Jee, S. B. (1994). *A Guide to the Development and Use of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Korea Psychological Testing Institute, Seoul.
- Kwon, Y. H., Kim, J. N. (2002). Effects of a Ready Planned Self Growth Program through MBTI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Career Ident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 of Korean Community Nursing*, 13(2), 216-229.
- Do, B. R. et al. (2001).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Jungdam, Seoul.
- Moon, S. Y., Kim, S. J., Kim, S. Y. (2001). Health Locus of Control and Eating Behavior of Obese High School Girls. *J of Korean Acad of Nurs*, 31(1), 43-54.
- Park, S. Y. (1987). *The Effects of Assertiveness Training on Nursing Student's Assertiveness behavior and Anxiety Reduction*. Unpublished master thesis, The Ewha Woman's University of Korea, Seoul.
- Park, S. Y. (1994). *The Effects of Assertiveness Training and Value Clarification Training on Nurse's Conflict Level and Conflict Management Mod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Ewha Woman's University of Korea, Seoul.
- Park, J. H. (2000). A Study of the Clinical Experience and Related factors in Nursing Students. *The J of Health Science of Masan College, Vol 1*, 1-16.
- Park, C. J.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Hope, Health Locus of Control & General Health of Nursing Students. *The J of Korean Acad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4(2), 159-171.
- Sim, H. S., Lim, S. H. (1996). *MBTI and Life Types*. Korea Psychological Testing Institute, Seoul.
- Yang, J. J. (2001). The Effectiveness of Assertive Training on the State Anxiety and Assertive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Experiencing Clinical Practice Training. *The J of Korean Acad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7(2), 54-67.
- Lee, M. O. (1997).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es' Relative Power and Interpersonal Conflicts. *The J. of Korean Community Nursing*, 27(1), 169-177.
- Lee, B. Y. (1999). *Analytical Psychology-C. G. Jung's thoughts on mind*. Seoul, Ilchogak.
- Lim, J. Y., Yoo, I. Y., Oh, S. M. (2001).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 SAT score and GPA of Student Nurses. *J of Korean Acad of Nurs*, 31(5), 835-845.
- Jang, I. S., Kim, J. N. (2002). Effects of Assertiveness Training on Assertiveness Behavior, Problem Solving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 of Korean Community Nursing*, 13(2), 239-248.
- Cho, N. O.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Assertiveness and Clinical Stress in Nursing

- Students. *The J of Korean Acad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4(2), 317-330.
- Cho, N. O., Hong, Y. S., Kim, H. S. (2001). Study of Nurse's Interpersonal Conflict and Communication. *The J of Korean Acad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7(2), 369-378.
- Ha, N. S. (1999). The Effect of Assertiveness Training on the Stress Response and Assertive Behavior of Nurses, *The J of Korean Nurs Admin Acad Society*, 5(1), pp 149-168.

- Abstract -

The Relationships of Myers-Briggs Type Indicator and Assertiveness Training to Assertiveness Behavior and Conflict Management Mode

Park, Jeong Hee*

Due to the fact that nurses may deal with diverse populations in the work place, it is very important for them to maintain appropriat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ith clients. Nurses should maintain diverse types of relationships appropriately with patients with special needs and their families during crisis, other nursing colleagues and staff on the same team, clients in the school or work place as well as the community. In particular, a hospital is a society with a system and hierarchy, and the importanc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s much more emphasized.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t is very important for a person to communicate with others in an accurate manner, and when the communication is not achieved appropriately, the person may have troubles and experience distress and conflicts because of the inaccurate communication of thoughts.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previous studies, nurses actually experience much

distress in the work place because of the miscommunication that they have with oth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bserve a correlation between Myers-Briggs Type Indicator and assertiveness behavior, and to examine the effects of assertiveness training on the assertiveness behavior and conflict management mode.

The subjects of this study included 20 persons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20 persons in the control group. Myers-Briggs Type Indicator was applied before the study. The assertiveness training group received six, 120 minutes sessions over a 3 week period. Pre-test on assertiveness behavior, Communication Conflict Inventory-General, Role Conflict Inventory-General, Conflict Management Mode was achieved for all the subjects prior to the training. Post-test was administered to all the subjects one week following the last session.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PC program to obtain findings on mean, standard distribution, t-test, and Pearson correl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① Myers-Briggs Type Indicator Introvert/Extrovert was correlated to assertive behavior and avoid-response type conflict management mode. ② The assertiveness training was correlated to assertiveness behavior, communication conflict degree, and avoid-response type conflict management mode. ③ The post-test scores between the training group and the control group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assertiveness behavior and avoid-response type conflict management mode. It is suggested that more studies need to be done to differentiate the effects of Myers-Briggs Type Indicator and assertiveness training on assertiveness behavior and avoid-response type conflict management mode.

Key word : Myers-Briggs Type Indicator, assertiveness training, assertiveness behavior, conflict management mode

* Professor of Department of Nursing Masan College